



보도시점 2023. 6. 23.(금) 10:00 배포 2023. 6. 23.(금) 07:00

여름철 집중호우 대응에 총력 한 총리, 빠른 기상예보와 철저한 침수방지 당부

-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첫 방문, 호우 재난문자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 여름 기후재난 대응의 척후병 역할을 수행할 것을 특별 지시
- 저지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청소, 물막이판 사용 안내 등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반복해서 확인·점검토록 당부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3일(금) 오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찾아 기상청이 6월 15일부터 직접 발송하는 재난문자 준비상황을 점검하고, 이어서 동작구 도림천 저지대 주택가를 방문하여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방지 대비상황을 점검하였다.
- 한 총리는 먼저 기상청을 방문하여 유희동 기상청장으로부터 여름철 기상예보 및 기후예측, 기상청의 재난문자시스템 등 방재기상대책을 보고 받았다.
 - 한 총리는 “지구온난화 추세와 더불어 올 여름 엘니뇨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폭염, 폭우, 홍수, 태풍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, 기상청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·정확하게 기후재난을 알리는 척후병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특히 “이번 달부터 기상청이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게 되어 집중호우 시 사고 발생으로부터 20분 정도 추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”며 “실제 상황에서 시행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
< 기상청 호우 재난문자 예시 >



- 이어서 한 총리는 서울 관악구, 동작구, 구로구, 영등포구로 이어지는 도림천 일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동작구 도림천 주변에 위치한 저지대 주택가를 방문하였다.
 - 도림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하천 산책로에서 고립, 급류 휩쓸림 사고가 일어나거나, 범람으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일이 있다.
- 한 총리는 하천 제방 복구현장,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설치상태, 빗물받이 관리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, “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, 돌발적 폭우 발생 시 하천 산책로에서의 고립, 급류 휩쓸림 사고에 대비하여 출입통제를 확실히 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, 반지하주택 물막이판에 대해서는 “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고, 위험상황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평소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적극 안내할 것”을 지시했다.
 - 이와 함께, “빗물받이를 이미 준설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·상인들이 덮개를 씌우거나 쓰레기를 투기하여 막히는 일이 빈번한 만큼 반복해서 확인하고 청소함은 물론 주민·상인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▲위험상황 예측 및 신속 전파 ▲침수방지시설 설치 ▲주민 대피 체계 구축 ▲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 상황 등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.
 - 기상청은 극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태풍 예보 간격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세분화하였으며, 환경부는 서울 도림천 등에 대한 도시침수예보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, 서울시는 도심지 침수예경보제를 도입하는 등 위험상황에 대한 예측·관측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위험정보를 전파하게 된다.
 - 또한,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침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주택,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'22.10월부터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왔고, 올해 3월 15일부터는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설치 일정을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.

- 특히, 노약자, 장애인, 아동 등 재해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무원 1:1 매칭, 서울시 ‘동행파트너’ 등 주민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피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.
 - 국토교통부는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임대 주택 이주 지원 및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실시하고 있으며, 서울시·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지상층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- 이날 한 총리는 “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연계를 통해 마련한 여러 침수방지 및 주민대피 대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총력 대응할 것”을 지시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	책임자	팀 장	박혜린 (044-200-1940)
		담당자	사무관	김희경 (044-200-1941)
	국무조정실 안전 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신강민 (044-200-2346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0-2348)



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



지하공간 이용 시

반지하주택, 지하 역사·상가



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
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

지하주차장



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
*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

지하계단



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
즉시 대피
*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

침수공간 탈출 시



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
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

침수계단 탈출 시



성인 종아리 높이(약 40cm) 전,
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
(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, 맨발로 신속 탈출)

공동주택 등 관리자

평상시



차수판 설치, 모래주머니·양수기 등
비치,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

호우 시



신속하게 차수판과
모래주머니 설치

대피 안내



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
즉시 대피 안내, 진입 금지

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

차량 이용자

차량침수



타이어 2/3가 잠기기 전,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
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
유리창을 깨고 대피

침수차량 탈출 시



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·외부
수위 차이가 30cm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
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신속 대피

강한 폭우 시 주행 금지



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100m 이상 거리 표지판
식별 불가능,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
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

지하차도



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
절대 진입하지 않으며,
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

세월교 횡단



교량에 물이 월류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
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



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
창문을 깨고 탈출

함께해요.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!

빗물받이란?



- 도시에는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, 빗물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
- 도시에 내린 빗물은 빗물받이로 모인 후 지하 빗물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.

빗물받이가 막히면?



- 담배꽂초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.
- 이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

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?

빗물받이에 담배꽂초, 쓰레기 버리지 않기



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



쓰레기,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·군청에 알리기



침수 예방의 작지만 큰 실천!

“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”에 우리 모두 함께해요.

